

May 06 예수님께 집중하기

• 마가복음 9:14-29

우리는 변화산 정상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갑니다(막 9:2-13).

현실은 때 순간

아름답거나 시적이거나 신나지 않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일상들로 메워집니다.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계곡에서 의심하며 혼들립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막 9:16, 19).

“얼마나 너희에

게 참으리요.” 꼭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변화산 체험 직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간 직후 만날 일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뿐 아니라 계곡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계곡에서, 즉 일상과 문제들 가운데서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산만하지 않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군중들, 감시하는 서기관들, 애원하는 아버지로 인해 당황했으며, 상황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과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셨습니다(막 9:21).

예수님은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하셨습니다. 가장 절실했을 아이의 아버지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기도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문제나 해결방안이나 나의 기대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고, 시종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 ❶ 계곡, 곧 일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 ❷ 기도로 주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